

Coming Home 123 운동
자기 자신 1명과 가족 2명, 이웃 3명을
예수님께 돌이키는 123 운동에
기도하며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에의 초대
Invitation to Happiness
幸福的邀请

for myself 为我自己
for family 为我家
for neighbors 为我邻居



2016년 10월 23일(주)

예수님께 돌아가는 '행복에의 초대'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을 예수님께로 초대합니다.
그 동안 교회에 안나오셨던 분들과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을 위한
행복에의 초대에 많은 기도와 관심 바랍니다

월간 아가페 제392호 · 2016년 10월호 발행 | 퀸즈장로교회 |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 886-4040, 4347 Fax : 718) 358-7789

말씀으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 전도로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퀸즈장로교회

agape

아가페

2016 · 10



행복에의 초대
Invitation to Happiness
幸福的邀请
Coming Home
2016년 10월23일(주)

지쳐 쓰러질 것 같으신가요?
집으로 가면 됩니다.
아버지는 잘 안아 주십니다.

후회가 많으신가요?
집으로 가면 됩니다.
아버지는 잘 바꾸십니다.

딱히 이룬 것이 없습니까?
집으로 가면 됩니다.
아버지가 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당신이 어떤 일을 했든지,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지,
지금 집으로 가면 됩니다.

따뜻한 아버지가
애타게 기다리시는
은혜로운 집으로.

Do you feel weary and burdened?
You can come to the Father's house.
The Father loves to embrace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Do you have too many regrets?
You can come to the Father's house.
The Father can change your regrets into hope.

Do you feel unaccomplished and lacking in achievements?
You too, can come to the Father's house
He has things that He has already prepared for you.

Whatever situation you may be in,
Whatever you may have done,
Whoever you may be,
You can come to the Father's house, and find rest there

To the house that is full of grace,
Where the Loving Father earnestly waits for you.

累的感觉都快要倒下了吗?
那就回家吧!
父亲温暖的怀抱在等着你。

人生中有许多后悔的事情吗?
回家就可以了。
父亲擅长于更新。

生活上一无所获吗?
那就回家吧!
父亲预备好了一切。

无论你处于什么样的状况,
无论你做过什么事情,
无论你是什么样的人,
现在只要回家就可以了。

慈爱的父亲张开双臂,
在苦苦的等待你。
回到充满爱的家中!

Вы устали так что не можете стоять?
Пора идти домой.
Папа ждет вас, чтобы обнять вас.

Вы очень разочарованны?
Пора идти домой.
Папа все поменяет.

Вы чего то не добились?
Пора идти домой.
Папа все приготовил.

В какой бы ты ни был ситуации,
Что бы ты не делал,
Кем бы ты ни был,
Пора прямо сейчас идти домой.

Горячий папа
Очень сильно ждет тебя
в благодатном доме.

집으로 回家 Домой Coming Home



담임 김성국 목사
Rev. Seoung Kook Kim
金星局牧师

{ 좋은 천국 }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장영춘 원로목사
Rev. Dr. Young Choon Chang

오래 전에 나성에 집회를 갔다가 디즈니랜드를 구경하게 되었다. 그 중에 ‘작은 세계’ 라는 어린이들의 세계를 보는 순간 황홀하여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이 춤을 추며 손을 흔들면서 노래하는 장면들이 각 나라마다 특색 있게 연출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정말 작은 천국을 보는 듯 하였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그 장면을 다시 보았다. 이렇게 좋은 것을 나 혼자 보는 것이 너무 아쉬웠다. 사랑하는 아들딸들이 함께 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그래서 다음 해 우리 아이들과 함께 디즈니랜드를 구경하러 갔다. 황홀경에 빠진 아이들이 밤이 되도록 집에 돌아갈 줄을 모르고 즐기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잘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캐나다 밴쿠버에 갔다가 빅토리아 섬에 있는 부처드가든을 가 보았다. 너무 아름다워 ‘이 지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도 있구나!’ 라고 감탄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거

A long while back, I was able to visit Disney Land while in Los Angeles for a revival meeting. At Disney Land, I was blissfully taken aback by the child-like wonder of one ride, “It’s a Small World”. Pure and innocent children danced and waved their hands, while they sang, each performing in their individual native costumes and customs; what a pretty sight to see! It really felt to me like I was seeing a small glimpse of heaven. Thus, I watched the scene two or three times over. I was sad to see such a beautiful sight by myself. I thought of how wonderful it would be if my beloved son and daughters could watch it with me. So, the next year, I took my children to visit Disney Land. When I saw my blissful children having the time of their lives, without thinking of leaving even past nightfall, I knew I had done the right thing by returning to this place with them.

Sometime after that trip, I was in Vancouver, Canada, and had the opportunity of visiting a garden in Victoria’s Vancouver Island. It was so beautiful that I was struck with wonder, and could only say to myself, ‘Could there be such a beautiful place as this on earth!’ From there, we drove by car to the Canadian Rocky Mountains. The awesome grandeur, the splendor, the majesty; I could not express with mere words. The snow-capped mountain peaks pierced the blue sky, and above them puffs of white cumulus clouds floated jauntily along as if they were dancing. The green fields of evergreens circled the waists of mountains, and the deer, goats, and bison pranced and frolicked across plains of wild flowers. As I drank in the beauty of the sparkling rivers flowing along the curves of the mountain range, and the deep blue-green lakes formed by the melting ice glaciers, my heart rang out with the hymn, “How Great Thou Art”. Therefore, the British say that be-

기서 차를 타고 캐나다 로키 산맥을 관광하였다. 그 장관, 그 멋, 그 장엄함이란 말로 형용하기 어려웠다. 높푸른 하늘 위를 찌르는 흰눈 덮힌 산봉우리들, 그 위에서 두둥실 춤을 추듯 나르는 흰 봉계구름, 바위산의 허리를 두른 무성하고 푸른 소나무 밭. 그리고 들꽃으로 수놓은 야산에서 뛰노는 사슴, 산양과 들소들의 무리, 산맥 줄기를 타고 흐르는 맑은 강물, 만년설이 녹아서 고인 파랑 또는 진 초록빛의 그림같이 아름다운 호수들을 바라보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라는 찬양이 저절로 흘러 나왔다. 그래서 영국인들은 천국 다음으로 좋은 이 로키 산맥을 죽기 전에 반드시 보고 가야할 곳이라고 말한다. 나 혼자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곳이었기에 나는 몇 년 전 아내와 세 아이들을 데리고 아름답고 장엄한 로키 산맥으로 휴가를 다녀왔다.

그런데 이 지상의 어떤 곳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곳

fore one dies one must see this Rocky Mountain range is said to be the most beautiful place after heaven. Because it was too breathtakingly beautiful for me to see and enjoy by myself, several years ago I returned to the beautiful and majestic Canadian Rockies on our family vacation with my wife and three children.

But there is a place that is incomparably better than any place here on earth. That place is heaven, where our Father God resides. Heaven is the place for reaching the culmination of all beauty, love, peace, and happiness. Because it is too beautiful for us to go to by ourselves, we have to take with us our loved ones, as well as the person who is seeking happiness, the lonely person, the sad person, the tired person, and the sick person. Only one person, our Lord Jesus Christ can lead all of these people to Heaven and give them true happiness.

이 있다. 그 곳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다. 천국은 아름다움의 극치, 사랑의 극치, 평화의 극치, 행복의 극치를 이루는 곳이다. 이렇게 좋은 천국 혼자 갈 수 없어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행복을 찾는 사람, 외로운 사람, 슬픈 사람, 고달픈 사람, 병든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한다. 이들 모두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좋은 천국 나 혼자 갈 수 없어 우리 퀸즈장로교회에서는 ‘행복에의 초대’ 잔치를 베풀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들을 초청한다. 우리 모두 이 귀한 일에 적극 동참하자.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고 좋은 천국 함께 가자고 권하자. 10월 23일 주일에 너도 나도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천국을 소유하는 행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란다.

How Can I Go to Such a Beautiful Heaven Alone?



입 큰 것이 대세인 동물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목욕탕에서는 입 작은 동물이 입 큰 동물의 등을 밀어 주어야 합니다.
 항상 자기 입 큰 것을 자랑하는 개구리가 오랜만에 목욕하러 갔습니다.
 개구리가 등 돌리고 열심히 목욕하고 있는 동물에게 말합니다.
 “등 돌리고 목욕하는 녀석, 이리와 내 등 좀 밀어라!”
 그 때 뒤를 돌아본 동물은 악어였습니다.
 개구리는 길고 거친 악어 등을 한참 밀다가 그 짧은 팔이 다 빠질 뻔했습니다.

화난 개구리는 입을 크게 썬는 수술을 하고 다시 목욕탕에 갔습니다.
 누군가 머리 숙이고 샴푸하기에 개구리가 크게 불렀습니다.
 “야 입마! 머리 그만 감고 내 등을 밀어라!”
 샴푸하다 머리를 든 동물은 하마였습니다.
 개구리는 두꺼운 하마 등을 탈진할 정도로 밀고 또 밀어야 했습니다.

열난 개구리는 입을 최대한 크게 수술해 달라고 의사에게 부탁했습니다.
 한 번 더 입 썬는 수술을 하면 그 날 죽을 수 있다는 의사를 으박질러
 개구리는 입을 진짜 크게 썬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한 바로 그 날,
 개구리는 누군가 걸리면 내 등을 밀 수 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목욕탕에 갔습니다.
 그런데 목욕탕 입구에서 개구리는 썬 입이 터져 죽었습니다.

목욕탕 입구에 서 있는 간판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금일 휴업”

목욕탕에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때를 밀어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길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 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 주시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밀어 주시는 주님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금일 휴업”

“
 나의 등 뒤에서
 ”

There was a town of animals, where the size of one’s mouth was most highly valued.
 In this town, there was a public bath with an unspoken rule, those animals with smaller mouths were required to scrub the backs of those other animals who boasted bigger mouths.

One day, a frog, who had always boasted about the size of his mouth went into the public bath, looked around and said to an animal, “hey, come here quickly and scrub my back.”

However, the one who turned around to face the frog was the enormous alligator, and consequently the frog was forced to scrub the alligator’s back until the frog’s arms grew sore and numb.

The frog was so angry that he was driven to have cosmetic surgery so as to increase the size of his mouth, and he quickly returned to that public bath! Upon arriving, he said to one of animals who was shampooing its hair, “Hey you! Stop shampooing and just come quickly and scrub my back already!” Sadly, the animal to turn around and face the frog, was the even more enormous hippo, consequently the frog was forced to once again scrub the back of the hippo, and he scrubbed until he felt that he would faint.

The angry frog grew angrier than he had before, so he asked the surgeon to make his mouth even bigger, despite being warned that the surgery could kill him, the frog insisted on receiving the surgery! On the same day he had received the surgery, he went back to the public bath hoping that he would find someone that would have to scrub his back, and feeling that for sure, this time, he would find someone. Sadly, the frog came to die at the entrance of the public bath before he could even enter.

The cause of death? There was a sign at the entrance which read:

“Closed Today.”

We may be like the frog, constantly searching for those who would scrub our backs, but the reality is that there may not always be people who will scrub our backs. However, there is someone who will always be there to help us in our life’s journey.

There is a Lord who helps me, who watches over our backs
 When life’s journey is weary and tiresome
 Even when we just want to give up everything
 He will be there to lift us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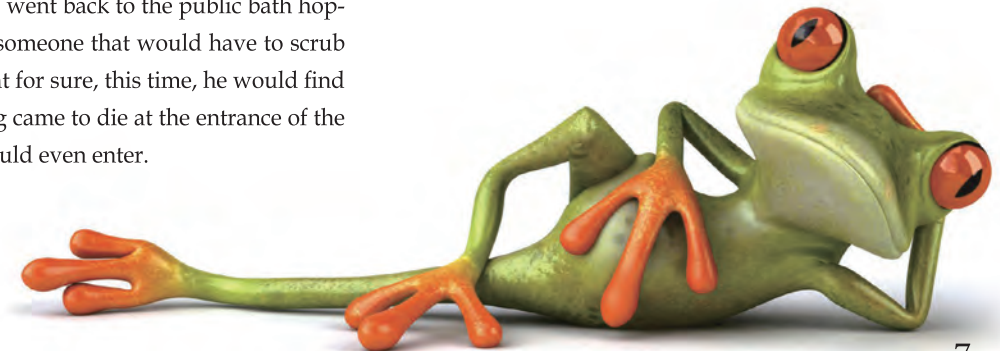
The frog looked for a place where he might be able to boast to make himself feel that he is better than others.

However, the reality of life is this, that such things and goals are meaningless. ,

We must realize that it is God who walks with us and fills us up. There is nothing that can fill our heart but God.

With God, there is no “Closed Today,” or “Out of Order,” there is only and always a, “Welcome!”

On My Back



“ 在我的背后 ”

有一个以嘴巴大而为尊的村庄。在那个村庄的澡堂里，嘴巴小的动物要给嘴巴大的动物搓背。平时都是夸自己嘴巴大的青蛙难得去澡堂洗澡了。去了之后青蛙看见一只动物正在背对着自己搓澡，“那个背对着搓澡的家伙，过来给我搓搓背！”那时回过头来的竟然是鳄鱼，结果青蛙搓了半天又粗糙又宽的鳄鱼后背，自己细短的胳膊差点都掉了。

生气的青蛙去做了个割大嘴巴的手术，再次去了澡堂。青蛙看见正有谁在那低着头洗头，就大声叫了他。“喂，家伙，不要洗头，快过来给我搓后背。”停下来抬头的居然是河马。结果青蛙又给河马搓了厚厚的后背，搓的差点晕倒了。

气急的青蛙跟医生要求说要把他的嘴巴割的尽量最大。医生告诉他说如果再割一次有可能会丧命，青蛙却不顾医生的劝说，威胁他再次做了一次手术把嘴巴割的非常非常大。手术后的当天，青蛙怀着了一颗满满的自信去了澡堂，确信任何一个动物一旦被看见就要给他搓后背。但是到澡堂门口青蛙因割大的嘴巴破裂而死掉了。因为他清楚的看到了门口写着的告示。“今日暂停营业”。

在澡堂里没有人会在我的背后给我搓背，但是在人生路上确实有人在我背后推动我，那在我背后帮助我的，就是我的主。在人生路上，当我疲乏和劳累，每天都想放弃时候，祂却推动着我……

在我背后推动我的主，在祂里面没有不可能的事，也没有“今日暂停营业”。



За моей спиной

Была деревня в которой жили животные с большими ртами. В такой деревне, в бане, те кто имел маленький рот, делали массаж тем у кого был рот большой. Всегда хваставшаяся большим ртом лягушка пришла в баню. Зайдя в развалочку она так крикнула: “Эй, кто там спиной, а нука быстро ко мне сделать массаж!” И это животное повернулось, оказалась это крокодил. Поэтому лягушка со своими слабыми лапками стала делать массаж, длиному и имеющее крепкую кожу, крокодилу. К концу конечно же выбившись из сил.

Рассердившись она сделала, операцию на расширение рта, и снова пришла в баню. Зайдя в баню, она увидела, что кто то там моет голову. Лягушка громко крикнула: “А нука, быстро повернулось, и ко мне делать массаж!” Это животное повернулось, оказалось это бегемот. Снова она должна была делать массаж своими лапками, этому большому и имевшую твердую кожу,

бегемоту.

Лягушка совсем, рассердилась, и попросила доктора, сделать рот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Доктор предупредил, что уже в следующий раз, операцию она не перенесет. Поэтому сделав все же операцию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Она с самым большим ртом пошла в баню. Все уже, кто попадется будет делать массаж целый день. Но подойдя к бане, она от шока открыла рот так, что сразу же умерла. Почему? Потому что на входной двери была одна надпись: “Выходной”.

Возможно в бане, некому сделать нам массаж. Но в наших жизнях, за мной всегда есть Тот, Кто будет стоять за меня. Тот, кто поможет мне всегда. Когда я устал и ослаб, Он будет поддержит меня.

У нашего Господа, который во всем поддержит и поможет нам, нет одного. Чего нет? “Выходного!”



There is a story of a sick man who was revived from his sickness after he heard a curse from someone that he did not know. Because of the curse, this man received a diagnosis from the hospital that said that he had a severe cancer of liver cancer, and he had only three more months, at most, to live. Everyone knew the grave news of this man's prognosis, and he had spent many days in tears. Then, one day, someone while passing by that man, shouted at him, "Sal Nom!" (which means, "you will be a survivor" in Korean). In the Korean language, the word, "Nom" has negative connotations, and as such, this man began to feel upset over being called "nom." But once he had that he was going to be the one to live, when he realized he had heard the word "Sal" he was moved and amazed. Until now, all those that he knew and encountered treated him as a man who was going to die, but this stranger was the first to declare that he was not a man who was going to die, but rather one who was going to survive, one who was going to live! He heard this word, "Sal Nom," that he was going to be the one who survive, though in the midst of such negative thoughts and circumstances. the one to live in the midst of all such negative thoughts against him.

After coming to this realization, the man's attitude toward his life changed. He began to tell himself, "I am not one who is going to die, but rather I am one who will live, I can live. I must life." With courage in his life and with such positive thinking, he himself became positive in the face of everything that came up in his life. We can never hear the words of life too often, we must constantly be reminded that we are ones who will live, and not ones who will die! Later, this man found the stranger who had originally spoken the words, "Sal Nom," to him, was a pastor, and that he had misheard this pastor. He had thought that he pastor said, "Sal Nom" (a rude way of telling someone to live), but in reality that pastor had been declaring to that man, "Shalom!" An ancient Jewish blessing of peace. Though he

有一个人得了不治之症，却听到了一个奇怪的骂人的话。医生诊断说他患了肝癌晚期，最多只能活3个多月。他的时间已经不多，他自己和周围的人都很清楚，因此每天都是以泪洗面。可是有一天，有个人骂他说是“shalnom！”然后就走了。听那个人骂他说是“家伙”，但前面的修饰词还是很感动了他。他一直把自己当成“要死去的人”，其他人没说但也是以同样的想法去看待他，突然听见“要活下来的家伙”。

这个奄奄一息的病危的生命开始改变了。“我不是要死的人，我是可活下来的家伙，我可以活着，我一定要活着。”他对生活重新拿出了热切的盼望和勇气，在言语和态度上都成为一个积极的人。听了无数次，我还是“shalnom”。

Salnom!

살놈!

misheard the word, it still resulted in his recovery, and led him to remind him that he is one who will live, and it led him to go to church and to pray for his health.

We must remind ourselves that our life is a life of shalom, a life of peace with God. Through the cross and blood of Jesus has led us not to death but to life, because it has reconciled us with God our Father! Because of Christ's blood, we can all be one and live in Him, because we have received eternal life through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We must remember, that we all who are, "Sal nom," are those who are to live in "Shalom!"

对那个病人说“salnom”的人竟是牧师，而且这个牧师不是骂他说是“可活下来的家伙”，而是跟他打招呼说“shalom!”是问候平安的“shalom”，他听成了“salnom”，却因此开始去了教会，又开始祷告，奇迹般的恢复了健康。

我们都是“shalom!”的人。主耶稣的十字架让我们成为和平的人。有点不好意思，但我们都是“shalom”。因为我们已经拥有主耶稣复活的新生命。希望大家不要有误会，请求理解。但故事的内容还是很不错的。

Salnom啊！Shalom!

어느 죽을병에 걸린 사람이
이상한 욱을 듣고 살게 되었습니다.
간암 말기 진단을 받은 그는 3 개월
밖에 못 산다는 최후통첩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시한부 인생임을 자신도 주변의 모든 사람도 다 알고
눈물로 하루하루 지내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보고
“살 놈!” 이라고 외치고 지나 간 것입니다. 놈이란 욱을 들
어 언짢았으나 그 앞에 있는 수식어에 너무 감동이 된 것입
니다. 자기 자신을 곧 “죽을 놈!” 이라고 여기며 지내고 있
고, 다른 사람들은 말은 안 해도 자기와 똑같은 시각으로 자
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뜬금없이 “살 놈!” 이라는 소리를 들
은 것입니다.

이 시한부 인생의 시각은 그 때부터 바뀌었습니다. “나는 죽을 놈이 아니다. 나는 살 놈이다.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살아야 한다.” 삶에 대한 뜨거운 용기를 가지고 말이나 태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없이 들어도 좋은 나는 “살 놈!”

그 시한부 인생에게 “살 놈!” 이라고 욱(?)하신 분은 다름 아닌 목사님이었습니다.

'shalnom' 用韩文直译是'可活下来的家伙'，
又与韩语当中一句骂人的话发音类似



그리고 그 목사님은 시한부 인생에게 “살 놈!” 이라고 욱한 것이 아니라 “살롬!” 이라고 인사한 것입니다. 평안을 기원한다는 “살롬” 을 “살 놈” 으로 잘 못 들었으나 아무튼 그는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면서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살롬” 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로 화목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안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우리 모두는 “살 놈” 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생명을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크게 이해를 간구하며 인사합니다. 오해없이 들어주십시오. 하지만 그 내용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살 놈이여 살롬!

참 뻔뻔한 나무

真厚颜无耻的树

싹이 이 땅에 살포시 얼굴을 내민 이후
 출기로 자라 푸른 잎을 내다가
 마침내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히는 그럴듯한 나무가 되기까지
 언제나 그 힘이 되어 주었던 것이 있습니다. 뿌리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뿌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연약한 싹이 아름답리 나무되기까지
 그를 안아도 주었고 버려도 주었습니다.
 열매마다 나무마다 뿌리와 얽힌 이야기를 듬뿍 품고 있습니다.

나무가 뿌리의 수고를 기억하고 고맙다고 외친다면
 나무가 서 있는 온 산마다 천둥소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산에는 바람 소리는 있을 뿐
 뿌리야 고맙다는 나무 소리는 없습니다.
 참 뻔뻔한 나무.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언제나 함께해주시면서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나를 붙잡아 주신 분이 있습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요 내 성장에 은총을 부으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거두어 간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흥측한 존재입니다.

사람마다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면
 온 땅은 큰 화산이라도 터진 것처럼 날마다 끓어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계절에도 온 땅은 적막하여 작은 들썩임조차 없습니다.
 뿌리의 은혜를 모르는 나무만 참 뻔뻔하다고 혀를 찰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当嫩芽羞涩的从地上露出来以后，树长出绿叶，
 终于开花结果，成了一棵像样的大树。一直成为
 树最坚实的后盾，就是树根。在风风雨雨中，树
 根一直站在那里，从一个嫩芽变成一颗茁壮的大
 树为止，他一直抱着树，也挺着树。每一个果子
 和每一颗树都蕴含着无数个与树根的故事。

如果树木记得对树根的感恩，并大声喊出来的
 话，想必所有树木所站立的山上都会有如雷般的
 声音出来。但是山上只有风声，却没有感谢树根
 的声音，真是厚颜无耻的声音。

一直陪伴着我直到今天，在风雨当中一直坚守
 着我的那一位，我生命的根源，施恩典于我的成
 长的那一位，就是阿爸父神。。。

如果每个人都把祂所受的恩典用感恩表现出来的
 话，想必整个大地都会像火山爆发一样沸腾起
 来。但是在感恩的季节里，整块地都很寂静，没
 有丝毫的动静，好像要被指责的不仅是懂树根
 的恩典的树木。。。

A Tree That is Too Stubborn

Since the plant sprout from the ground after being sown,
 Since the plants grows into trees and make green leaves,
 Make flowers and fruits, there is a part that has supported its growth from the beginning
 roots..

In the midst of rains and snows, the roots have remained and supported the tree
 From beginning to the end

All the fruits, and trees have full of stories with their root

If the tree says it remembers the work of its root and give word for appreciation

All the mountains where the trees stood will be full of joyful noises

But, on the mountain there is only the sound of wind,

And there is no word of appreciation to the roots

It is such an unappreciated trees

There is someone who was always with me, who upheld me until I had finally grow up into a full tree even in the
 midst of great storms in my life. He is the root of my life, and it His grace that has given me growth.

He is God. If I were to take away the story of God from my life, I would be nothing, but a monster.

We are to express our gratitude to God, and if we were to do so the land would be like a volcano on the verge of erupting.

However, in this season of thanksgiving, there is not a hint of this joyful noise, nor actions of gratitude. But we must
 not blame the trees for being stubborn and for not appreciating their roots, when we do not appreciate God's help in
 our own lives.

그날, 그 시간의 조짐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오전 7시 50분의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전투기가 하늘을 덮고 날아와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해 수많은 미군 전함과 비행기를 폭파했고 2천 명이 넘는 군인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하와이 공격은 아무 조짐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일본이 미국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고, 진주만 연안의 일본 상선들이 스파이처럼 보인다는 첩보도 있었고, 진주만 연안 200 마일 지점에 잠수함이 있다는 정보도 있었고, 심지어 그날 아침 7시에 미군 레이더에 수백 개의 새까만 점이 미국을 향해 오고 있다는 다급한 보고가 있었어도 그 모든 경고를 받은 자들마다 그 경고를 무시하였습니다.

레이더에 포착된 새까만 점들은 진주만을 폭격하려는 일본 전투기였는데 그 보고를 받은 당직 장교의 말은 이랬습니다.
“별거 아냐, 신경 꺼! (well, don't worry!)”

신(神)도 가라앉힐 수 없다고 큰소리치며 출항한 타이타닉호에 다른 배의 선장으로부터 전문(電文)이 왔습니다. ‘타이타닉호 선장께, 서쪽으로 향한 증기선들이 북위 42도, 서경 49~51도 사이에 빙산과 작은 얼음덩이 및 얼음 별판을 보고하고 있음. - 바르’ 무슨 똥판지같은 소리냐며 타이타닉호의 무전사들이 무시하다가 몇 번씩 계속 오는 전문에 마지못해서 그것을 선장에게 갖다 주었고, 선장이 그 배의 소유주에게 그 전문을 건네주었을 때 그는 그것을 꾸겨서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별거 아닌 줄 알고 신경을 켜지 않으니 타이타닉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수많은 사람과 함께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별거 아냐
신경 꺼!

“괜찮겠지 뭐” 하는 정부의 허술한 초기대응과 “나 하나쯤이야” 하는 시민들의 안일한 보건의식이 한국에서 전염병 메르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첫 이유로 꼽히는 데는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눅 21:11),” 마지막 심판이 이르기 전의 징조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온 세상에서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목격되고 있는데 “별거 아냐, 신경 꺼! (well, don't worry!)” 의 태도가 내게는 없는지요?

전염병의 확산보다 더 빠르게 복음의 확산이 있도록 우리 모두 분연히 일어나 헌신합시다. “그 흠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라는 사도행전 8장 4절 같은 삶은 누가복음 21장 11절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은 사람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On that day, there were many signs of what was to come. This is a true story from the events of December 7th, 1941. On that fateful December day the Japanese air force attacked Pearl Harbor, Hawaii, and destroyed numerous battleships and planes, while also killing more than 2,000 U.S. soldiers.

But it is not as though this incident came from nowhere with no warning signs.

There had been reports leading up to the attack that the Japanese were planning a direct attack against U.S. forces. U.S. Intelligence had already given reports of Japanese spy ships that had been disguised to look like ordinary ships for trade and commerce. Even on the day of the attack, in the early morning hours, at 7 A.M., there had been an urgent message sent to military headquarters that there were countless dots on the radar that were rapidly bearing on Pearl Harbor. But none of these signs were taken seriously.

The officer who had read and received the 7 A.M. report concerning the dots on the radar, which were in actuality Japanese warplanes planning to attack, heard the report and simply said, “don't worry.”

The Titanic was a ship so large and powerful that it was said that even a god would be unable to sink such a ship.

well,
don't worry!

On the fateful day of its infamous crash, the captain had received a telegram warning him of a large number of icebergs and ice fields which lay directly ahead of the Titanic's path. This telegram was a message of the utmost importance, and though the message was received, it was never delivered to the bridge. The result? The Titanic sank, and many of its passengers died as a result of it.

South Korea had suffered from an outbreak a serious disease that was later labeled as, “MERS.” Though this should have been a contained and fairly isolated incident, it became a serious outbreak because the government failed to take the warning signs of the outbreak seriously. Also, the citizens kept telling themselves that someone else would do something about the disease to help prevent it, with everyone having such a mentality, nothing was done.

Jesus in Luke 21:11 said that in the last days, “There will be great earthquakes, and in various places famines and pestilences...” Jesus mentions and warns us of such signs in the last days, and we must be careful not to simply ignore his words, and say, “well, don't worry.”

Through our passion for short-term missions let us show others that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is taking Jesus' warning seriously. Let's devote ourselves to the task of the Great Commission so that the gospel would spread faster than even the most infectious of diseases. Acts 8:4 describes for us the life of a Christian, “Now those who were scattered went about preaching the word...” This must be the life of those who will take seriously Jesus' warning of Luke 21:11. must be life of those who took the warning of Luke 21:11 seriously. This must be our lives, to go about into all the earth and spread the gospel.

那一天，要发生那个时间的征兆有好几次。是1941年12月7日早上7点50分发生的事情。日本的战斗机全天覆盖的飞过来攻击美国夏威夷的珍珠湾，以致许多美国战舰和飞机被轰炸，并有两千多个美国军人死亡。

日本对夏威夷的攻击不是在没有任何预兆下进行的。有情报说日本正在准备攻击美国，也有情报说珍珠湾延安的日本商人像间谍，也有情报说珍珠湾沿岸200迈地点发现有潜水艇，甚至当天早上7点钟有紧急报告说在美国雷达区里发现有数百个黑色的点在靠近美国，所有得到这些警告的人都忽视了那些警告。

被雷达所探测到的黑点正是来轰炸美国的日本战斗机，当时听到报告的军官的回答却是这样的。“什么都不是，不用担心！（well，don't worry!）”

声称连神都无法使这艘船沉没的泰坦尼克号大张旗鼓的出航后，从其他船的船长那里得到电报。‘至泰坦尼克号船长，往西边出航的其他蒸汽船报告说，在北纬42度，西经49~51之间有冰山和小块冰块，还有冰原。-巴勒’得到电报的时候，泰坦尼克号船上的战士们都觉得很荒唐。但是电报传来好几次，他们就把信息转达给船长了。当船长把信息传给船主时，他却把信息条子捏起来丢到垃圾桶里。他们觉的不是什么事情，没有再去理会。因此，泰坦尼克号与许多的人都沉到水里去了。

“应该没什么问题”的政府疏忽的初期应对和“也不差我一个”的公民安逸的保健意识无疑地成为了mers传染病在韩国急剧扩散的首要原因。

什么都不是， 不用担心！

“地要大大震动，多处必有饥荒瘟疫。...(路 21：11)”是主耶稣说的最后的审判之前将要出现的预兆，我们不能忽视。在全世界我们都能看到地震，饥荒和传染病，是否心里还有“没什么，不用担心！（well，don't worry!）”的态度呢？

通过今天短期宣教士的差遣崇拜想再次体现一下，我们皇后区韩中长老教会绝对不忽视主耶稣的警告。让我们奋然站起来去侍奉，使福音的传播远比传染病的散播快。使徒行传8章4节中说：那些分散的人，往各处去传道。这就是没有忽视路加福音21章11节当中警告的人，应当要活出来的生命。

В то время, в тот час было много разных признаков. Это было в 7 часов 50 минут 7 декабря 1941 года. Японские самолеты заполнили небо и атаковали американскую морскую базу на острове “Перл-Харбор” Гавайского архипелага.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самолетов и кораблей было уничтожено, погибло свыше 2000 солдат и офицеров. Атака японских самолетов не была произведена без всяких признаков. Были донесения, о подготовке японской армии к нападению. Была повышенная активность торговых судов Японии возле о. Перл-Харбор, идентифицированные как шпионские. Были также донесения, что в акватории 200 миль возле о. Перл-Харбор, замечены подводные лодки ВМФ Японии. Даже в день атаки в 7 часов утра, на американских радарх, были замечены сотни черных точек, стремительно приближающихся на американские войска. Но все эти поспешные донесения были не восприняты всерьез, людьми которые принимали решения. Когда на радаре были обнаружены эти сотни черных точек, надвигающихся на Перл-Харбор, дежурный офицер ответил: “ Все хорошо, ну не волнуйся!!”

Капитану “Титаника”, о котором говорили, что даже Бог не сможет его потопить, было донесение от капитана другого судна: “Капитану “Титаника”, “Идущие на запад пароходы сообщают об айсбергах, гроулерах и ледяных полях от 42° северной широты, между 49° и 51° западной долготы - Бар”. На эти

Все хорошо, ну не волнуйся!

никчемные сообщения, радисты “Титаника” несколько раз не обращали внимания, затем доложив капитану. Капитан принес это сообщение владельцу корабля, на что владелец, скомкал и выбросил его в мусорную корзину. “Ничего страшного, все нормально!” подумал он и через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Титаник” затонул вместе с огромным количеством людей.

“Авось пройдет” было отнош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да подумаешь, я же один” было отношение жителей Кореи к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м мерам, приведшие к большой эпидемии вируса МЕРС.

“будут большие землетрясения по местам, и глады, и моры...(от Луки 21:11”

Это слова о признаках, которые будут в конце всех дней. Нам не нужно обманываться. Когда вокруг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землетрясений, гладов и болезней, может я тоже сейчас говорю: “Все хорошо, ну не волнуйтесь!”.

До появления эпидемий болезней, мы должны быть посвящены для того чтобы быстрее пришла “эпидемия” Евангелия. “Между тем рассеявшиеся ходили и благовествовали слово. Деяния 8:4” эти слова должны быть о нас с вами, если мы с должным уважением относимся к предупреждению Луки 21:11.

영적 비상사태

세상은 반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절대 기준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일레로 동성애 허용을 보면 인권이나 문화라는 이름으로 자기 소견 좋을 대로 살 뿐입니다.

세상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핵무기의 위협이나 개성공단 폐쇄 같은 극한 대립이 이어집니다.
 여기저기서 살상과 자살과 파괴가 일상화 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암울한 시대의 적합한 지도자라고 나서는 자들은 많으나
 그들과 희망의 날개를 펴기에는 현실 앞에 절망의 나락이 더 깊어 보입니다.

세상은 포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삼포(三抛) 시대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만 해도 그렇습니다. 일하는 대로 먹고 산 것은 옛일입니다.
 “아메리카 드림”은 커녕 생존의 위협 앞에 떨고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아메리카 드림” 길을 찾기보다
 직장생활 나아가 이민생활 자체를 포기하려는 고민도 작지 않습니다.

반항과 절망과 포기는 마귀의 영입니다.
 마귀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분탕(焚蕩)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포기시키지만 자기의 일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영적 비상사태입니다.
 마귀의 궤계를 섬멸시킬 강력한 무기를 꺼낼 때입니다.
 머뭇거리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위대한 행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가장 위대한 행동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했던 무기인데
 놀랍게도 기도는 그 시대마다 가장 강력한 신병기(新兵器)였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을 쭉대발 만들고 있는 “반항과 절망과 포기”는 마귀와 함께 꺾일 것입니다.
 기도의 함성이 곧 승리의 외침이기에,
 온 교회에 영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기도의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The world is in rebellion against God.
 They do not acknowledge Him, and indeed the moral standard of society has already fallen.

The acceptance of homosexual relationships serves as an example, using words such as “human rights” or “culture” they live as they please.

The world is in a state of despair.
 We see a continuation of extreme conflicts such as nuclear threats, or the closure of the North-South Joint Korean Industrial Town, Kaesong.
 We see murder, suicide, and destruction everywhere and in every place.
 There are many who claim themselves as the leader who can solve these problems in such an age of despair.

But the grim reality is this, the depths of despair in our society is already too deep for anyone to swim out and find hope in the midst of these troubled waters.

The world is starting to give up.
 In Korea, many of the younger generations must surrender before being able to live in this world: love, marriage, and children.

Spiritual State of Emergency

In the United States, it has been a long time since people did not need to worry about their living so long as they worked hard, and put in the proper effort. We see that middle and lower class families are worried about their financial stability. Even immigrants are beginning to give up on the American Dream because the road has grown too difficult.

Rebellion, despair, and giving up, these are the things that Satan tempts us to do. .
 Satan, he wanders around the world, and ruins people.
 He tempts us to give up, but he will not surrender to his plans.

We are in a spiritual state of emergency.
 Now is the time to arm ourselves with the powerful weapon that is capable of destroying the schemes of Satan.
 There is no time for us to wait. The time has come, and that time is now. Now is the time for us to take action, and do the best thing we can do against such despair and schemes of Satan.

What we must do, is pray.
 This act of prayer has been the weapon of God’s people for thousands of years.
 And surprisingly, it has been the most powerful weapon throughout all the ages.
 If we pray, then there is a way. If we pray.
 The schemes of Satan, tempting us towards, rebellion, despair, and surrendering will be put to an end.
 The sound of prayers from the lips of the people of God, is in itself a victory.

It is for these reasons, that in this season of Lent, we declare a state of spiritual emergency, and we call to all churches, and to all Christians everywhere, to mobilize and pray.

属灵的紧急情况

世界在变化，不再认同上帝了。世界上绝对的标准已经消失了。一致地去赞同同性恋的举止就可以看出他们只是举着人权和文化的旗帜，按着自己喜欢的方式去活着而已。

世界在绝望。核武器的威胁和封闭开城工业区的极端对立相继出现。到处都有杀伤，自杀和破坏，以致让我们觉得习以为常。有很多自称是在这个阴暗时代里再适合不过的领导者站出来，愿与他们展开希望之翼。但是，现实里所面对的绝望深渊却太深了。

世界在放弃。韩国现在是三弃时代。年轻人正在放弃恋爱，放弃结婚，放弃生孩子。我们正在生活的美国也一样。不再是当年所说的，付出多少，回报就有多少的年代了。先不提“美国梦”，现在我们面临的是生存的危机。与其去寻找看不见的“美国梦”之路，考虑要不要去放弃工作，或者整个移民生活也是一个很大的问题。

反抗，绝望和放弃都是魔鬼的灵。魔怪在到处作怪，到处破坏。魔鬼使我们放弃，却不会放弃自己的事情。现在是属灵的紧急情况，是时候要把歼灭魔鬼的强力武器拿出来的时候了。没有时间去犹豫，现在是需要伟大的行动的时候了。最伟大的行为不是别的，就是祷告。

祷告是数千年当中，神的百姓每次遇到困难的时候都去使用的武器。神奇的是，祷告在任何一个时代都是最强大的新兵器。祷告就可以成就。当我们祷告的时候，在糟蹋世界的“反抗、绝望和放弃”将与魔鬼一并倒下。祷告的呼喊声就是胜利的呐喊声。四旬斋！在这里向大家宣布属灵的紧急情况，下达祷告的命令。

精神危机

这个世界在叛乱。

在这个世界已经没有任何绝对的标准了。例如，同性恋权利的合法化，在人文主义思想的浪潮下，只是试图生活，就像我想的那样。

这个世界在放弃。

核武器的威胁，封闭开城工业区的极端对立，以及相继出现的杀戮、自杀和破坏，让我们习以为常。许多自称是在这个时代最适合的领导者站出来，愿意与他们展开希望的翅膀。但是，现实中的绝望深渊却太深了。

世界正在放弃。韩国现在是三弃时代。年轻人正在放弃恋爱，放弃结婚，放弃生孩子。我们正在生活的美国也一样。不再是当年所说的，付出多少，回报就有多少的年代了。先不提“美国梦”，现在我们面临的是生存的危机。与其去寻找看不见的“美国梦”之路，考虑要不要去放弃工作，或者整个移民生活也是一个很大的问题。

这个�界失去了希望。

在韩国，人们说他们生活在“三个失去希望的年代”。年轻人已经放弃了见面、婚姻和孩子的希望。即使在美 国，我们生活的地方，发生的事情也是如此。生活就像你挣来的钱。这已经是过去的事了。“美国梦”只是颤抖，在简单的生存中。无法实现的“美国梦”，只是带来关于你想放弃生活的想法。

叛乱，绝望，无助，这是魔鬼的灵。魔鬼走遍全世界，播撒他的种子。他没有失去他的希望，他希望我们失去我们的希望。现在精神危机。

是时候带来最强大的武器，来摧毁魔鬼的陷阱。现在需要伟大的行动。这个伟大的行动，就是祷告。

祷告是数千年中，神的百姓每次遇到困难的时候都去使用的武器。神奇的是，祷告在任何一个时代都是最强大的新兵器。祷告就可以成就。当我们祷告的时候，在糟蹋世界的“反抗、绝望和放弃”将与魔鬼一并倒下。祷告的呼喊声就是胜利的呐喊声。四旬斋！在这里向大家宣布属灵的紧急情况，下达祷告的命令。

祷告是数千年当中，神的百姓每次遇到困难的时候都去使用的武器。神奇的是，祷告在任何一个时代都是最强大的新兵器。祷告就可以成就。当我们祷告的时候，在糟蹋世界的“反抗、绝望和放弃”将与魔鬼一并倒下。祷告的呼喊声就是胜利的呐喊声。四旬斋！在这里向大家宣布属灵的紧急情况，下达祷告的命令。

对于教会，宣布“精神危机”，所有力量都在自己的地方，是时候祷告了！

우

리가 플러싱에 사는 이유

The Reason

Why We Live in Flushing

These days, our neighborhood of Flushing is no longer a place where Koreans come for immigration, but a place that Korean residents have been leaving, one-by-one. This is where our historically Korean church is located. We could have moved to a better place with suitable neighborhood, but there are many reasons as to why we are choosing to remain here, in this busy, and complicated place, Flushing. First, though it cannot be perfect,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still needs to be a place of support, and community for all Korean immigrants who remain in this area. In the past, this neighborhood of Flushing, was once a starting place for many Korean American immigrants. Even Korean Americans from beyond our neighborhood of Flushing would come together, and gather at our church, to worship, to evangelize, and to have fellowship with one another. From its foundation our church has served as a center for the Korean American immigrant community, indeed it continues as such a center even to this day. It is our desire for our church to remain here in Flushing, as a place where all those who have left their homes in Korea, and seeking a new life in America, might find a community, a family, and a place that they could call home.

Another reason that we are not leaving Flushing, is because we are hoping to become a multicultural church, a church that truly reflects the nature of our Lord Jesus and the gospel work that he has wrought. Flushing remains one of the most diverse neighborhoods in the world. Would God be pleased with us, if we only paid attention and looked after the affairs of just our country, and its people? Certainly not. "After this I looked, and behold, a great multitude that no one could number, from every nation, from all tribes and people and languages, standing before the throne and before the Lamb, clothed in white robes, with palm branches in their hands, and crying out with loud voice, "Salvation belongs to our God who sits on the throne, and to the Lamb!" (Rev. 7:9-10) If our church were to be a reflection of the heavenly community though we are here on earth, how much joy would that give to our God!

To be a place where Koreans cast their burdens unto,
To be a place where diverse population would gather together in one united heart,
To be a place for the community of Christ of this age,
For all these, our church,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is still in Flushing.

이제 플러싱은 한인들이 새롭게 이주해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 둘 떠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플러싱에 있습니다. 교회도 한인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아니면 좀 더 쾌적한 곳으로 이사 갈 수 있겠지만 아직 우리가 복잡한 플러싱에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부족하지만 퀸즈장로교회가 이곳에서 여전히 한인 성도들의 버팀목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날, 낯선 미국 땅에 도착한 많은 한인들이 그 이민 생활의 첫발을 시작한 곳이 플러싱입니다. 거주지가 꼭 플러싱은 아니어도 삶에 지치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한인들이 퀸즈장로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인들 누구든지 새로 오기에 편하고, 계속 오기에 익숙하고, 다시 오기에 고향 같도록 이 자리에 있으려 합니다.

우리가 플러싱을 떠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다민족이 함께 어우러진 예수 공동체, 진정한 교회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플러싱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민족이 사는 곳입니다. 자기 민족만 잘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일까요? 아닙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계7:9-10)."

마침내 완성될 천상의 다민족 공동체를 지상에서 우리 교회가 그 모습을 앞서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버거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한인 성도들이 기뻐할 곳, 그리고 다양한 민족들이 한마음으로 어울릴 곳으로 이 시대의 아름다운 예수 공동체를 일구어가는 우리 퀸즈장로교회는 여전히 플러싱에 있습니다.



ПОЧЕМУ МЫ ЖИВЕМ ВО ФЛАШИНГЕ

我们生活在法拉盛的理由

现在的法拉盛已不再是韩国移民者们的聚集地，而是成为了逐个离开的地方。我们的教会就是坐落在这个法拉盛。教会也可以搬到更多的韩国移民者们聚集的地方，或者到更宽敞一些的地方，可是我们仍然有留在这个繁杂的地方的理由。

首先，第一个理由是即使我们仍然不足，但还是要成为韩国信徒们的一个可依赖的后盾。过去到达美国的很多韩裔移民者们都是在这个法拉盛里开始了他们的移民生活。他们不一定住在法拉盛，但是怀着因生活的重担的劳累和对未来的

渺茫的担忧来到我们皇后长老教会一起敬拜，一同学习，同心宣教并聚在一起团契走到现在。我们继续要守候在这里，让这里成为一个让新朋友方便过来，继续想来，并且回来的时候像故乡一样的地方。

我们不离开法拉盛的另外一个理由，是我们渴望成为一个多民族和谐共存，并以耶稣为中心的群体，成为一间真正的教会。法拉盛可谓是世界当中最多个民族聚集在一起生活的城市。单单只有自己的民族好好的聚在一起，这就能使我们的神喜悦吗？不是！“此后，我观看，见有许多的人，没有人能数过来，是从各国各族各民各方来的，站在宝座和羔羊面前，身穿白衣，手拿棕树枝。大声喊着说，愿救恩归与坐在宝座上我们的神，也归与羔羊。”(约翰启示录 7：9-10)。如果我们能够在我们的教会看到最终在天上的多民族共同体的实现，那我们的神该会有多么的喜悦呢！

让我们的教会仍然成为挑着生活重担的韩国移民信徒们可依靠的地方，还有其他多元化民族可以以一条心融合在一起的地方。在这时代里，一个美丽的耶稣共同体早已存在在这地方，就是我们的皇后区韩中长老教会。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корейцы, все больше не приезжают, а покидают Флашинг. Наша церковь расположена в этом районе. Церковь могла бы тоже переехать туда, где больше живет корейцев, или в лучшее место. Тогда почему же мы продолжаем находиться во Флашинге?

Первая причина в том, что пускай не совершенно, но мы продолжаем быть опорой для корейцев живущих в этом районе. В прошлом многие корейцы начинали, свою нелегкую жизнь иммигрантов именно во Флашинге. Даже если они жили и не во Флашинге, наша церковь стала для многих местом собраний и служений, учебы и совершения миссии, удобным и привычным, “маленькая родина”. Поэтому мы хотели бы быть здесь и дальше

Не покидаем мы Флашинг и потому что надеемся, что мы станем общиной Иисуса для всех народов. Флашинг это место где компактно проживают люди со всего мира. Нравится ли Богу если в нашем собрании будут тольк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дной нации? Нет. В

Откровении 7:9-10 сказано: “После сего взглянул я, и вот, великое множество людей, которого никто не мог перечесать, из всех племен и колен, и народов и языков, стояло пред престолом и пред Агнцем в белых одеждах и с пальмовыми ветвями в руках своих. И восклицали громким голосом, говоря: спасение Богу нашему, сидящему на престоле, и Агнцу!” Если мы то, что случится на небесах, сможем увидеть здесь на земле. Как от этого будет радостно Богу?

Да возможно жизнь, все та же тяжелая жизнь иммигрантов. Но церковь на которую могут положится разные народы, где могут стать одним целым, прекрасным собранием последователей Иисуса, в наше время. Это ли не великая милость Бога. И поэтому мы как церковь, продолжаем оставаться во Флашинге!



천국의 장으로 나아오십시오.

문을 열고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우리교회는 1974년 2월 24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설립 되어 43주년을 향하여 달려가며 한국어, 영어, 중국어와 러시아어 4개 국어로 예배드리는 다민족교회의 모본되는 교회입니다.

장영춘목사님께서 지난 40여 년 동안 견지하신 말씀충만, 기도충만, 성령충만, 사랑충만과 감사충만함으로 위대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재현하는 교회가 되자는 목표로 꾸준히 성장한 뉴욕의 장자교회로서의 사명을 이어 김성국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비전인 차세대 양육과 다민족 선교의 목표를 지향하며 늘 은혜롭고, 뜨겁고,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입니다.

새로 오시는 교우들이 교회생활에 잘 정착하도록 힘쓰며 시간마다 사랑의 애찬을 나누도록 준비하는 새가족 위원회와 예배 참석을 위하여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차량 위원회, 그리고 지역사회 영유아 교육을 위한 아가페유치원과 열린유아원, 한국인의 정체성을 교육하는 한국학교,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퀸즈성인대학 등 기독교 교육철학에 바탕을 둔 무료 교육의 기회와 수 만권의 도서를 비치하고 열람과 대여를 무료로 할 수 있는 도서관 등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예배의 준비와 통역을 위한 예배위원회, 영상과 방송으로 예

배를 돕는 영상 방송위원회, 4번의 주일예배를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대와 각 연령별로 구성된 4 개의 합창단, 경배와 찬양팀과 관현악단이 속한 찬양위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살림 구석구석을 살피는 12개 부서의 봉사위원회, 특별히 교육에 전심전력하는 8개 교회학교(영어, 유아, 유치, 유년, 초등, 중등, 고등, 청년 대학부)는 앞선 교육자료와 훈련된 교사의 헌신으로 소문난 교회학교입니다. 또한 어린이 오케스트라(Ainos youth Orchestra), 어린이 합창단 G2G, 바디워십 하랑예찬, 그리고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Awana 등 특별활동위원회의 많은 프로그램 가운데 자녀들의 소질과 재능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장년교육위원회는 장년성경공부반, 제자훈련, 영성훈련, 어머니학교 등 장년의 재교육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의 현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7월과 8월에는 단기선교팀이 다양한 민족과 언어로 집약된 전도폭발부의 전도훈련을 받은 후 국내외 10여개 지역으로 파송되고 있으며 많은 선교지역 협력선교는 물론 단독 선교지를 캄보디아와 카자흐스탄에 개척하여 선교사를 파송하며 지속적인 해외선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인터넷전산위원회에서는 인터넷과 웹사이트를 관리하며 온라인 선교를 담당하고, 문서선교를 전담하는 미주 크리스천신문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일 년에 두 번 꿈나무 장학생을 선발하고, 스피치 컨테스트 등을 열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칭찬하고 격려해주어 귀한 일군으로 세우는 일에 전심하고 있습니다.

일 년에 두 차례 선교와 건축을 위한 목적있는 바자회는 교인들 간의 친목과 협력을 돈우고 이웃사랑을 나누며 교회 주차장까지 가득하게 천국잔치의 기쁨과 흥겨움이 넘칩니다. 추수감사절에는 사랑의 바구니를 만들어 지역사회에서 수고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이처럼 저희 교회는 주일 뿐 아니라 매일 풍성한 행사가 진행되며 살아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어느 곳에서 이처럼 행복하고 든든한 믿음을 세울 수 있는지요. 매번 드리는 예배가 신실하며 집중하여 주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이 곳, 퀸즈장로교회입니다.

이 풍성한 가을에 진정한 천국의 장으로 나아오십시오. 문을 열고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고국환 장로]

교회학교에서 자라는



퀸즈 장로교회 교회학교는 우리교회의 미래이며 소망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가 정성을 드려 특별히 기도하는 부서입니다. 교회의 역할에서 가르치는 부분의 중요성은 우리 예수님이 몸소 보여 주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년별로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청년대학부 총 8개의 부서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부서마다 부장, 총무, 교사, 그리고 PTA(학부모회)가 구성되어 있고, 이들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 서로 긴밀히 협력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라는 본 교회의 목적을 따라 이민 교회에서 자라난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로 자라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세상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부딪히는 수많은 잘못된 언어와 행동 속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바르게 대처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학교의 최종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전도로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라는 2016년 포어에 따라 교회가 추진하는 다민족 선교와 전도에 동참함으로써 배운 말씀들을 실제로 삶 속에 실천하며 뉴욕의 다양한 민족 안에서 한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춘 리더가 되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학교에서 훈련받은 학생들이 각자의 학교 활동의 여러 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학교의 자랑거리로는 특별활동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리더들...

어어나 - 재미있게 성경구절을 외우게 하며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짜여진 어린이 제자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연령별로 구분된 소그룹에서 교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멘토의 역할도 담당하는 교사들의 귀한 헌신이 함께 합니다.

아이노스 유스 오케스트라 - 악기를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아이들에게 이론과 음악 레슨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음악을 어려서부터 접하여 순화된 인성을 형성하도록 합니다.

하랑예찬 - 율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연습하는 프로그램으로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치며 성장기 자녀들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와줍니다.

G2G 어린이 합창단 - 화음의 절묘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절제와 어울림을 배우며 전도하는 선교 합창단으로 교회의 각 행사마다 공연의 기회를 주어 발표력과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그밖에도 매주 토요일에는 한국학교를 개설하여 한국인의 역사와 인물을 배우며 한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교육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료 매주 화, 목요일에 무료로 열린유아원을 개설하여 2살 반 이상의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퀸즈성인대학은 시니어 성도의 재교육현장으로 음악, 미술, 요가, 영어 및 실생활에서 적용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어 운영되는 뉴욕에 몇 안 되는 교육기관입니다.

퀸즈장로교회 교회학교는 전교인이 사명을 갖고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자라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김재형 목사]



우리 교회를 한 줄로 말씀드리면...

“군대 같은 질서와 잔치 집 같은 즐거움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교회” 입니다.

성경적으로도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이구요, 또 잔치집인 것이 맞습니다.

아무튼 우리교회는 **다·다·다·다** 해요.

- 1 **다** 민족과 함께 예수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 언어의 민족이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연합으로도 예배, 선교, 친교, 봉사하고 있으며, 더 많은 민족이 함께 모여 아름다운 예수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 2 **다** 음 세대에게 거룩한 리더십을 심으려고 합니다.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시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가 모든 영역에 거룩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주중과 주일에 움직입니다만, 앞으로 이일에 더욱 분투하려고 합니다.
- 3 **다** 양한 훈련으로 스스로 강한 제자가 되어가고, 죽기까지 제자를 훈련시켜 갑니다.
우리 교회 훈련은 짝세요. 그런데 주님 은혜로 누구나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부터 열기가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여러 훈련으로 늦은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 4 **다** 이나미한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과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르려고 합니다.
이번의 “다” 는 억지로 갖다 붙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참된 교회가 그렇듯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과 그 나라의 통치를 받습니다. 말씀과 성령님이 이끄시는 예배를 드리고, 가정으로 일터로 열방선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도로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예배·모임안내				교회학교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본당	영아부	1부 오전 10:30 2부 오후 12:15	영아부실(지하)
	2부	오전 10:30		유아부		유아부실(2층)
	3부	오후 12:15		유치부	유치부실(2층)	
	4부	오후 2:00		유년부	유년부실(4층)	
	오후	오후 4:00		초등부	초등부실(3층)	
	영어	오후 12:00	양순관	중등부	오전 10:30/오후 12:15	중등부실(4층)
	중국어	오전 9:45		고등부	토요모임 오전 9:00	
러시아어	오후 1:30	고등부실	고등부	오전 10:30/오후 12:15	고등부실(3층)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본당	청년대학부	오후 2:00	본당
수요기도예배	수요일	오후 8:00			금요모임 오후 8:00	유아부실
새가족환영모임	화요일	오후 7:30	친교실	청년선교부	오후 2:00	본당
전도폭발훈련	화요일	오후 7:30	고등부실		토요모임 오후 7:00	고등부실
제자·영성훈련	목요일	오후 8:00				

ENGLISH MINIS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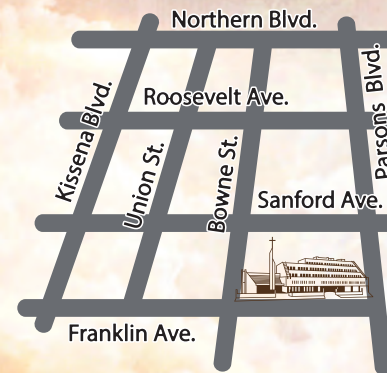
Lord's Day Worship	Sundays	12:00 PM
Bible Study	Sundays	10:30AM & 2PM
Wednesday Night Prayer	Wednesdays	8:00 PM
Praise & Prayer Night	1st Wed/month	8:00 PM
College Group	Fridays	7:00 PM
Young Adults	2nd/4th Tues	7:30 PM
Mommy & Me	1st Wed/3rd Sat	10:00 AM
Men's Group	3rd Fri/month	7:30 PM
Small Groups	2nd Sun/month	5:00 PM
Evangelism Outreach	2nd Sat/4th Sun	10AM & 2:30 PM

CHINESE MINISTRY

主日崇拜	周日上午	9:30-10:45	副堂
主日学	周日上午	11:00-12:00	体育场
门徒训练	周日下午 (季度)	1:00-3:30	三楼316室
三元布道	周日下午 (季度)	2:00-4:00	三楼316室
洗礼前预备班	周日下午 (季度)	1:00-2:00	三楼316室
洗礼班	周日下午 (季度)	4:00-5:00	三楼316室
查经班	周二晚上	7:00-9:00	体育场
祷告会	周三晚上	7:00-8:15	二楼211室
弟兄团契	每月第一个周五晚上	7:00-9:00	大饭厅
姐妹团契	每月第二个周五晚上	7:00-9:00	大饭厅
青年团契	每月第三个周五晚上	7:00-9:00	大饭厅

RUSSIAN MINISTRY

Богослужение: воскресенье 13:30,
зал на третьем этаже. Тел. 917-9400596.



이주 한인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 (718) 886-4040, 4340, 4347 Fax : (718) 358-7789